

# 한·중 소비자의 금융상품 투자성향 비교 연구

## - 금융상품 투자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김시월\* · 오기\*\* · 조향숙\*\*\*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금융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투자성향과 소비자유형을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 소비자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국가의 소비자유형이 행동적 투자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보아, 궁극적으로는 금융상품 투자자인 양국가의 소비자특성에 맞는 정책 제언과 금융 관련 소비자교육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소비자의 금융상품 투자성향을 인지적 투자성향과 행동적 투자성향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양국의 인지적 투자성향을 살펴보면, 한국소비자는 안정추구형과 안정형이, 중국소비자는 안정추구형과 위험 중립형이 많았다. 행동적 투자성향은 한국소비자는 간접투자, 장기투자, 여유자금 내에서 투자, 수익성 우선투자 성향이 높은 반면에 중국소비자는 직접투자, 단기투자, 빚을 내서 투자, 안정성 우선투자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상품 소비자유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행동적 투자성향을 기준으로 군집 분석을 실시 후, 5군집으로 유형화하였다. 한국 소비자는 간접투자의 안정적인 투자자인 3군집과 단기집중의 공격적인 투자자인 1군집이 많았다. 반면에 중국은 단기집중의 공격적인 투자자인 1군집과 직접분산의 중립적인 투자자인 2군집이 많았다.

셋째, 양국의 소비자 유형과 국적이 행동적 투자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직접투자 대비 간접투자성향, 빚을 내서 투자성향 대비 여유자금 내에서 투자성향은 소비자유형이 주효과를 보였고, 수익성 우선투자 대비 안정성 우선 투자성향은 국적과 소비자유형이 주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단기투자 대비 장기투자는 국적, 소비자유형이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금융상품 투자성향은 소비자특성에 기인하는 요소와 국가의 시장환경의 차이에 기인하는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 글로벌 시장에 대비하여 소비자의 특성과 양국의 시장환경을 고려한 금융상품 투자자의 소비자교육과 금융상품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행동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핵심단어: 한국과 중국소비자, 금융상품 투자성향, 소비자유형, 금융상품 투자경험

\*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전공 교수, E-mail: [october@konkuk.ac.kr](mailto:october@konkuk.ac.kr)

\*\*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전공 석사, E-mail: [wqhb@qq.com](mailto:wqhb@qq.com)

\*\*\*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전공 강사, E-mail: [chosuk3@hanmail.net](mailto:chosuk3@hanmail.net), 교신저자

## I. 서론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시장경제와 사회 환경의 변화로 투자환경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노동시장에서 고용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기업의 역동성은 떨어지고 급속한 고령화 시대의 진입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손상호·김영도, 2014). 기존의 저축과 다른 투자 수단과 대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자산 및 위험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저축상품에만 의존하던 다수의 투자자들이 저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이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박광수 외, 2010).

소비자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소득증대와 함께 재무관리 능력은 부의 지속에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금융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가계 구성원의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통해서 재산을 증대하는 행위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투자란 미래의 불확실한 가치를 얻기 위하여 현재의 확실한 가치를 희생하는 행위로 투자자는 투자행위를 통하여 현재의 소비를 충족시키려는 욕구와 재정적 복지를 달성하려는 욕구간의 평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재정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김민정·최현자, 2008). 금융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익성과 위험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성과 위험에 대한 선호도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에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Sarin & Weber, 1993).

한국 금융투자시장의 경우, 시장환경에 기인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이 촉진되었다. 금융소비자의식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다양화되면서 금융거래 비중은 2007년 기준 평균 56.4%로, 전년대비 10.4%가 증가하였다. 2016년 2분기 현재 우리나라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총금융자산은 1경 5천조원을 돌파하였다. 총금융자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법인이 6조 954조 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3천 284조 3천억원으로 그 다음 순이며, 비금융법인이 2천 352조 3천억원, 일반정부가 1천 423조 5천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한국은행, 2016; 연합뉴스, 2016.09.28)고 한국은행은 발표하였다. 1975년 총 금융자산이 25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금융자산은 급속하게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총 주식투자인구도 2000년 3,304천 명에서 2013년 5,076천 명 이상으로 증가하여 경제활동인구의 19.72%를 차지하고 있다(한국거래소, 2016). 이는 국민경제에서 금융투자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 금융투자시장의 경우,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개인들의 투자가능 자산규모가 연평균 21% 성장하였는데, 특히 가구당 투자가능자산이 600만 위안 이상인 고액자산가구의 수는 3년간 30% 성장하였다. 고액자산가는 가구당 평균 4종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투자 수단은 주식이라고 하였다.

중국 주식시장의 주식보유 금액은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크지만, 거래금액은 개인투자자가 2012년 84%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개인투자자의 약 70%가 매입 후 6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있는 것을 나타나 단기투자행동이 많았는데, 특히 심천 증권거래소의 연간회전율은 2010년 기준 344.3 배로 세계 1위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한국은행, 2016). 금융투자 상품은 기본적으로 손실발생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며, 구조적 특수성과 정보의 전문성 그리고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성이 변하는 신용재적 특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금융투자 상품의 정보탐색 및 가치의 평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박종옥·손상희, 2012). 더욱이 최근에는 상품이 다양해지고 복잡한 금융기법이 적용되면서 상품의 선택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어 투자자 스스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의사결정이 힘들어지게 되었다.

최근 중국이 금융시장의 개방을 확대하면서 금융상품이 다양화되고, 그 규모가 증대되어 중국투자자들의 투자결정요인은 금융행동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금융상품 투자성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국과 중국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투자성향 관련 소비자유형을 도출하고 국적과 소비자유형에 따른 행동적 투자성향의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양국 소비자의 금융상품 투자성향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스스로 주관적으로 평가한 본인의 금융상품 투자성향을 '인지적 투자성향'이라고 명명하고, 위험태도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어떠한 금융상품을 선호하고, 선택하고자 하는지 그 행동특성에 따라 구분한 투자성향을 '행동적 투자성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인지적 투자성향과 행동적 투자성향이 어떠한지 파악하고 각 변수에 따라 양국의 투자성향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금융상품 투자성향에 따른 소비자유형을 분류하고, 소비자유형별로 사회경제적 특성과 재무교육 필요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또한 양국의 투자성향에 따른 소비자유형의 차이는 어떠한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 금융상품 투자경험자의 소비자유형이 행동적 투자

성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 II. 선행연구 고찰

### 2.1. 소비자의 금융상품 투자성향의 개념 및 정의

최근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저축의 매력이 예전과 같지 못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이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투자는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수익을 바라는 행위(박광수 외, 2010)로서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다림의 과정이다. 투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 위험을 수용하고 반응하는 수준 즉, 투자성향은 각 소비자마다 상이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9년에 제정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금융상품 소비자들의 투자성향은 기초정보를 분석한 투자성향과 소비자가 스스로 소비자유형을 선택한 위험선호 투자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단일한 용어로 정의가 합의되지 않은 채, 위험수용성향, 위험감수도, 위험회피도 및 위험태도 등 다양한 용어가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험수용성향(risk-taking propensity)이란, 투자 시에 개인 금융소비자가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손실의 크기로 정의되며(Grable & Lytton, 1998), 특히 개인 금융소비자의 투자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주소현, 2009). 한편, 위험감수도(risk tolerance)는 위험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으로 개인 위험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얼마만큼 불확실성을 감수할 의사가 있는지를 뜻한다(정운영·김경자, 2004). 또한 투자위험과 수익률에 대한 개인의 교환의사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개인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여윤경·정순희, 2004). 다시 말해 위험수용성향이 강한 사람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성향이 약한 사람은 적은 수익을 보더라도 위험을 줄이기를 원한다. 위험회피도(risk aversion)란 위험감수도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되며, 위험을 싫어하여 피하고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연구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자는 위험회피자로 가정되며, 특히 자산을 선택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위험회피자를 이성적인 투자자로 가정하고 있다(Laughhunn et al., 1980; March & Shapira, 1987). 본 연구에서는 위험수용성향 내지 위험감수도와 동일한 맥락이지만, 이들을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투자성향’이라는 용어를 사용

한다.

소비자유형은 일반적으로 인지적(Cognitive) 특성을 고려하여 5가지로 구분되어 이용되고 있다. 5개의 투자성향은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투자권유준칙)」에 따른 모든 금융업에서는 투자의 유형을 어떤 위험도 회피하며 은행의 이자율만큼의 안정한 성장을 추구하는 안정형, 안정적으로 투자하면서 10~20% 정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안정추구형, 안정적으로 투자하면서 30% 이상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위험중립형, 투자원금의 10~20%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20%이상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한다(한승조 외, 2015).

투자의향이 실제 투자 행동으로 이어지질 가능성이 높은 행동적(Behavioral) 특성을 고려한 구분은 통상 리커트(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Kim, 2010; Yoon, 2011). 실제 한승조 외(2015)는 4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행동적 투자성향을 측정하였다(<표 1> 참조).

<표 1> 행동적 투자성향

A	A에 아주 가깝다	A에 가까운 편이다	B에 가까운 편이다	B에 아주 가깝다	B
(1) 주식·채권 등 직접투자를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를 선호한다.
(2) 단기적으로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3) 좋은 투자기회가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좋은 투자기회가 있더라도, 여유자금 내에서 투자한다.
(4) 한 가지 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다양한 상품에 분산하여 투자한다.
(5) 투자에서는 수익성이 우선이다.	①	②	③	④	투자의 안정성이 우선이다.

\* 출처: 한승조·고현민·구교찬(2015). "MBTI 성격유형에 따른 투자성향 연구" 대한산업공학회공동학술대회 논문집, 4049-4054.

## 2.2. 소비자의 금융상품 투자성향 영향요인

투자성향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투자성향이 금융상품 투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투자성향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주소현, 2009; 김영민·이명휘, 2012)로, 모든 유형의 펀드투자 행동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적 변수(성영애, 2013)이다. 또한 투자성향은 재무적 손실을 견디어 낼 수 있는 능력(Grable & Carr, 2014)으로 사람들이 스스로의 투자성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손실의 견딜 수 있는 능력,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위험의 양, 그리고 감정적으로 견딜 수 있는 위험의 총량을 고려하여 한다고 하였다(Louw, 2015).

투자성향에 따른 소비자 유형을 살펴보면 주소현(2009)은 투자성향에 따라 최소한의 위험, 평균정도의 위험, 평균이상의 위험, 상당한 위험의 4가지로 구분하였고, 허경옥·유수현(2012)은 투자성향을 판별하는 변수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위험감수형, 위험중립형, 위험회피형 3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민경실·송인성(2014)은 경제학적 기대효용이론에 근거한 측정방법을 통해 국내금융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측정하였다. 특히 기대효용이론 기반의 확률척도 방식을 차용한 투자성향을 같은 측정 도구로 사용하여 고위험추구, 위험추구, 위험중립, 위험회피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 2.2.1. 사회경제적 변수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가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김미리·김시월, 2013; 김지수, 2007; 노전표, 2004; 성지미·안주엽, 2007; 이진형, 2008; 민재형·구기동, 2004; 민경실·송인성, 2014; 성지미·안주엽, 2007; 홍대연, 2005; Sung & Hanna, 1996; Bajtelsmit & Bernasek, 2001; Lyons & Yilma, 2004).

성별에서는 남성소비자가 여성보다 위험을 선호하는 정도가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리·김시월(2013)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성지미·안주엽(2007)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다고 밝혔다. 그리고 불확실성하에서 개인투자행태를 분석한 민재형·구기동(2004)의 연구결과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더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보였다. 반면, 노전표(2004)의 연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투자위험감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연령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보인다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보인다는 결과도 일부 있었다. 민재형·구기동(2004)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적극적인 투자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 프라이빗 बैं킹 고객의 투자성향별 특성을 분석한 김지수(2007)의 연구결과에서는 연령이 낮은 집단이 공격형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전표(2004)와 홍대연(2005)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다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보인다는 상반된 결과를 밝혔다.

교육수준은 대부분 위험감수도에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1992년 SCF(Survey of Consumer Finance)자료를 분석한 Sung & Hanna(1996)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에 따라 위험수용성향은 증가하였다. 1994년 HRS자료를 이용한 Bajtelsmit & Bernasek(2001)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위험감수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형(2008)은 위험금융자산 보유액을 분석한 결과, 대

졸과 석사 이상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의 경우보다 위험자산 보유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결혼여부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보수적이라는 연구와 위험감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라는 연구가 있다. Lyons & Yilmaz(2004)는 기혼여성의 경우, 미혼남성이나 미혼여성과는 다른 영상의 투자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기혼여성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욱 보수적인 투자 경향을 보여주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낮은 반면, 채권에 투자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였다. 반면에 성지미·안주엽(2007)의 위험감수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결혼여부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라고 하였다.

직업의 경우, 홍대연(2005)의 연구에서는 자영업자가 가장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보였고, 김지수(2007)의 연구에서는 실버계층, 주부, 전문직 종사자가 안정형인 반면, 기업체 임직원의 경우 절대성장형으로 나타났다.

## 2.2.2. 재무상태와 교육 특성 변수

재무상태 특성은 주로 소득, 거주부동산, 거주이외 부동산, 현금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액,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투자총액 등으로, 재무교육 특성은 재무교육 경험수준과 필요도로 구성하였다.

소득 수준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투자성향을 공격적 투자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실·송인성(2014)은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은 성별과 연소득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소득이 높을수록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민재형·구기동(2004), 홍대연(2005)는 소득이 많을수록 공격적,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부동산은 주식투자자의 가계 부동산 보유액이나 가계재무목표가 개인 투자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최창열 외, 2010), 가계가 예금이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월 저축을 하는 경우 투자성향이 높고, 저축 및 투자목적은 금융자산 선택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허경옥·유수현, 2012; 조혜진·최재경, 2015). 또한 평균투자총액 즉 투자규모는 개인의 투자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혔다(Lewellen et al., 1997).

재무교육은 일반적으로 학교 등 공식적인 기관에서 받은 재무교육 뿐만 아니라 재무설계 또는 재무상담을 받은 경험을 포함하고자 한다.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는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 자산 등 재정자원을 보존시키고 증대하여 소비자 개인과 가계가 기대하는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 목표를 달성해가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이기춘 외, 1988)으로 재무목표 달성을 통해 재무상태를 향상시킴으로써

재정적 복지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다. 재무상담(Financial Counseling)은 때로는 재무설계와 혼용되기도 하며 재무설계상담 또는 재무컨설팅, 금융상담을 의미하기도 하므로(성영애, 2013) 넓은 의미에서 재무교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오중윤 외(2014)의 재무설계상담 관련 연구에서 재무설계상담을 받은 이후 조사대상자인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주관적 재무복지를 구성한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능력, 재무만족도의 대부분 항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단순 재무지표와 재무비율지표들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재무상담 관련 효과성을 살펴보면 실제 지출액인 총 소비지출은 재무상담 전보다 후에 증가하였으나, 소득 대비 총 소비지출인 평균소비성향을 살펴보니 상담 전보다 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시월·조향숙, 2015).

이러한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변수를 고찰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직업, 월평균소득, 거주부동산 및 거주이외 부동산, 저축액, 투자총액,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재무교육 경험수준, 재무교육 필요도 등을 포함하였다.

### III. 연구문제 및 방법

#### 3.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소비자의 금융상품 투자성향의 분포는 어떠하고,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금융상품 투자성향 분포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소비자의 금융상품 투자성향에 따른 소비자유형은 어떻게 분류되고,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소비자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한국과 중국 금융상품 투자경험자의 소비자유형이 행동적 투자성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 3.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한·중 소비자 중에서 금융상품 투자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한국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등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이상의 금융상품 투자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6년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양국 각 30부씩 총 60부를 조사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한 후 2016년 4월 7일부터 4월 17일에 걸쳐 한국과 중국 모두 패널회사를 활용하여 본 조사를 진행하

였다. 설문지는 한국과 중국 각 400부로 총 800부를 배포한 후 금융상품 투자경험이 있는 소비자만 추출하여 한국 292명, 중국 308명으로 최종 600명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 3.3. 측정도구 및 변수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이다<표 2>.

<표 2> 관련 변수와 측정

변수	내용	측정	문항수
국적	1. 한국 2. 중국	명목척도	1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명목척도, 비율척도	4
재무상태 특성	월평균 소득, 거주부동산 총액, 거주 이외 부동산유무, 자유 저축액,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유무, 연간평균투자총액	명목척도, 등간척도	6
재무교육특성	경험수준, 필요도	5점 리커트척도	4
투자성향	인지적 투자성향	명목척도	1
	행동적 투자성향	4점 리커트척도	5

선행 연구(최재경·양세정, 2015; 김종모, 2014최창열 외, 2009; 김종모, 2014)의 문항을 참고하여 설문지 초안을 완성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표면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응답자의 의견을 받아 미흡한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 구성을 살펴보면 독립변수는 국적변수와 사회경제적 특성, 재무상태 특성, 재무교육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표 2>와 같다. 종속변수인 투자성향은 인지적 투자성향과 행동적 투자성향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인지적 투자성향은 소비자가 스스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성향으로 2009년에 제정된 「표준투자권유준칙」 Part II에서 위험선호도에 관한 부분을 이용하여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행동적 투자성향은 소비자의 개인행동을 통하여 파악하는 투자성향으로 실제로 개인투자자가 어떠한 금융상품을 선호 혹은 보유하는지 그 투자행동을 파악함으로써, 투자성향이 어떠한지 판단하는 것으로 한승조 외(2015)의 행동적 투자성향 5 문항을 구성하였다.

### 3.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금융투자 경험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재무상태 특성, 재무교육 특성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의 기초통계분석과 카이제곱( $\chi^2$ )분석을 실시하였다.

금융투자 경험자의 소비자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국적과 소비자 유형이 행동적 투자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 3.5.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한국과 중국의 금융상품 투자경험이 있는 소비자로서 한국 소비자 292명, 중국소비자 308명이다.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3>.

<표 3>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N(%) = 전체: 600(100), 한국: 292(100), 중국: 308(100)

변수		한국	중국	전체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	147(50.3)	201(65.3)	348(58.0)
	여	145(49.7)	107(34.7)	252(42.0)
	계	292(100.0)	308(100.0)	600(100.0)
연령	20대	34(11.6)	87(28.)	121(20.2)
	30대	73(25.0)	98(31.8)	171(28.5)
	40대	93(31.8)	74(24.0)	167(27.8)
	50대 이상	92(31.5)	49(15.9)	141(23.5)
	계	292(100.0)	308(100.0)	600(100.0)
교육수준	고졸이하	57(19.5)	80(26.0)	137(22.8)
	대졸	204(69.9)	198(64.3)	402(67.0)
	대학원 이상	31(10.6)	30(9.7)	61(10.2)
	계	292(100.0)	308(100.0)	600(100.0)
결혼여부	미혼	87(29.8)	73(23.7)	160(26.7)
	기혼	205(70.2)	235(76.3)	440(73.3)
	계	292(100.0)	308(100.0)	600(100.0)
직업	기능직/판매직	48(18.5)	91(29.5)	139(24.5)
	사무직	133(51.4)	101(32.8)	234(41.3)
	관리직/전문직	38(14.7)	98(31.8)	136(24.0)
	무직/기타	40(15.4)	18(5.8)	58(10.2)
	계	259(15.4)	18(5.8)	58(10.2)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4.1.1 조사대상자의 재무상태 특성

한국과 중국 금융상품 투자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재무상태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4>.

<표 4> 조사대상자의 재무상태 특성

N(%) = 전체: 600(100), 한국 = 292(100), 중국 = 308(100)

변수	한국	중국	전체	$\chi^2$ (df)	
	빈도(%)	빈도(%)	빈도(%)		
월평균 소득	400만 원 이상/8천 위안 이상	102(34.9)	84(27.3)	186(31.0)	4.54(2)
	200-400만 원 미만/4천 5백 위안-8천 위안 미만	111(38.0)	138(44.8)	249(41.5)	
	200만 원 미만/4천 5백 위안 미만	79(27.1)	86(27.6)	165(27.5)	
	계	292(100.0)	308(100.0)	600(100.0)	
거주 부동산총액	2억 미만/80만 위안 미만	135(46.2)	144(46.9)	279(46.6)	.03(1)
	2억 이상/80만 위안 이상	157(53.8)	163(53.1)	320(53.4)	
거주 이외 부동산 유무	유	97(33.2)	123(39.9)	220(36.7)	2.91(1)
	무	195(66.8)	185(60.1)	380(63.3)	
자유저축	100만 원 미만/10만 위안 미만	61(20.9)	78(25.3)	139(23.2)	8.16(3)*
	100-300만 원 미만/10만-20만 위안 미만	71(24.3)	65(21.1)	136(22.7)	
	300-1000만 원 미만/20만-30만 위안 미만	81(27.7)	61(19.8)	142(23.7)	
	1000만 원 이상/30만 위안 이상	79(27.1)	104(33.8)	183(30.5)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유무	유	148(50.7)	130(42.2)	278(46.3)	4.33(1)*
	무	144(49.3)	178(57.8)	322(53.7)	
연평균 투자총액	1000만 원 이하/5만 위엔 이하	163(55.8)	160(55.0)	323(55.4)	.04(1)
	1000만 원 초과/5만 위엔 초과	129(44.2)	131(45.0)	260(44.6)	

p\* < .05, p\*\* < .01, p\*\*\* < .001

재무상태 특성은 월평균 소득, 거주 부동산총액, 거주 이외 부동산 유무, 자유저축,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유무, 연평균 투자총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상태 특성 변수 중 월평균 소득, 거주 부동산 총액, 자유저축, 연평균 투자총액 등의 변수는 한국과 중국의 화폐단위와 물가가 동일하지 않아 동일한 급간으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국과 중국의 각 재무상태 특성의 분포와 평균값을 구분하여 각각의 급간을 분류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한국은 400만 원 이상이 34.9%, 200-400만원 미만, 38.0%, 200만 원 미만 27.1%이었고, 중국은 8천 위안 이상 27.3%, 4천 5백 위안-8천 위안 미만, 44.8%, 4천 5백 위안 미만 27.6%이었다.

거주 부동산총액은 한국은 2억 이상이 53.8%로 2억 미만 46.2%이었고, 중국은 80만 위안 이상이 53.8%, 80만 위안 미만이 46.9%이었다. 거주 이외 부동산은 한국은 있는 경우가 33.2%이었고, 중국도 있는 경우가 39.9%로 양국 모두 40% 미만의 소비

자가 거주 이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자유저축은 한국의 소비자는 300-10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1000만 원 이상이 그 다음 순이었고 100-3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나 300만 원 이상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중국의 소비자는 30만 위안 이상이 가장 많았고, 20-30만 위안, 10만 위안 미만, 10만-20만 위안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유무는 한국은 대출이 있는 경우가 50.7%, 중국은 42.4%로 나타나 한국 소비자가 중국 소비자보다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연평균 투자총액은 한국은 1000만 원 이하가 55.8%, 1000만원 초과 44.2%이었고, 중국은 5만 위엔 이하 55.0%, 5만 위엔 초과 45.0%로 나타났다.

#### 4.1.2 조사대상자의 재무교육특성

한국과 중국 투자경험 소비자의 재무교육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재무교육경험과 필요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다<표 5>.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재무교육경험은 5점 만점에 한국은 2.62점, 중국은 4.11점으로 중국소비자의 재무교육경험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재무교육필요도도 동일하게 한국 소비자 3.77점, 중국소비자 4.20점으로 중국소비자의 재무교육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재무교육특성

변수	한국	중국	전체	t값
	평균	평균	평균	
재무교육경험	2.62	4.11	3.99	-23.48***
재무교육필요도	3.77	4.20	3.39	-7.64***

p\* $\lt$ .05, p\*\* $\lt$ .01, p\*\*\* $\lt$ .001

## 4.2. 금융상품 투자성향

한국과 중국의 투자경험소비자의 금융상품 투자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관적 투자성향인 인지적 투자성향과 행동적 투자성향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과 중국소비자를 합한 전체소비자의 투자성향을 살펴보고, 양국소비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4.2.1. 인지적 투자성향의 분포

전체소비자의 인지적 투자성향을 분석한 결과 안정추구형이 52.0%로 가장 많았고, 위험중립형, 안정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순으로 나타났다<표 6>. 안정형과 안정추구형을 합하면 67.0%로 높게 나타나 양국소비자는 주관적으로 본인이 안정

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적극투자형 9.5%, 공격투자형은 3.3%로 나타났다.

〈표 6〉 인지적 투자성향의 분포

변수	빈도	%
안정형	90	15.0
안정추구형	312	52.0
위험중립형	121	20.0
적극투자형	57	9.5
공격투자형	20	3.3
합계	600	100.0

#### 4.2.2 행동적 투자성향의 분포

전체소비자의 행동적 투자성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직접투자 vs 간접투자, 단기투자 vs 장기투자, 빚을 내서 투자 vs 여유 자금 내에서 투자, 집중투자 vs 분산투자, 수익성 우선투자 vs 안정성 우선투자 항목을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다(표 7).

〈표 7〉 행동적 투자성향의 분포

A	A에 아주 가깝다	A에 가까운 편이다	B에 가까운 편이다	B에 아주 가깝다	B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1) 직접투자	2.42		.89		간접투자
(2) 단기투자	2.51		.90		장기투자
(3) 빚을 내서라도 투자	3.19		.82		여유자금 내에서 투자
(4) 집중투자	2.91		.82		분산투자
(5) 수익성 우선 투자	2.88		.84		안정성 우선 투자

\* 점수분포: 점수가 2점 이하로 낮을수록 A 금융투자성향을, 3점 이상으로 높을수록 B금융투자 성향을 지님.

각 문항은 점수가 2점 이하인 경우 A의 투자성향을 가지고, 3점 이상인 경우 B의 성향을 지닌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성향은 2.42점,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로 2.51점으로 2점과 3점 사이에 위치해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중립적인 성향을 보였다. 반면에 빚을 내서라도 투자와 여유자금 내에서 투자는 3.19점으로 빚을 내서라도 투자성향을 지닌 소비자보다 여유자금 내에서 투자하는 성향을 지닌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집중투자 성향보다는 분산투자 성향이, 수익성 우선투자 보다는 안정성 우선 투자성향을 지닌 소비자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4.2.3 인지적 투자성향과 행동적 투자성향의 차이

전체 소비자의 인지적 투자성향과 행동적 투자성향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지적 투자성향을 독립변수로, 행동적 투자성향을 종속변수로 일원배치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표 8>.

<표 8> 인지적 투자성향과 행동적 투자성향의 차이

변수	행동적 투자성향												
	직접투자 vs 간접투자		단기투자 vs 장기투자		빚을 내서라도 투자 vs 여유 자금 내에서 투자		집중투자 vs 분산투자		수익성 우선투자 vs 안정성 우선 투자		전체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인지적 투자 성향	안정형	2.54		2.64	b	3.43	c	2.79	b	3.28	c	2.94	d
	안정추구형	2.46		2.44	ab	3.24	bc	2.93	b	3.04	c	2.82	cd
	위험중립형	2.30		2.52	ab	3.10	c	3.06	b	2.62	b	2.72	bc
	적극투자형	2.32		2.75	b	2.73	a	2.90	b	2.39	b	2.61	b
	공격투자형	2.20		2.20	a	2.95	ab	2.45	a	1.06	a	2.28	a
	계	2.42		2.51		3.19		2.92		2.88		2.78	
F비	1.64		2.71*		7.81***		3.12*		33.47***		10.33***		

p\* < .05, p\*\* < .01, p\*\*\* < .001

분석결과 인지적 투자성향에 따라 행동적 투자성향 중 직접투자 vs 간접투자성향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단기투자 vs 장기투자, 빚을 내서라도 투자 vs 여유자금 내에서 투자, 집중투자 vs 분산투자, 수익성우선투자 vs 안정성 우선 투자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4.2.4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금융상품 투자성향의 차이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인지적 투자성향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인지적 투자성향의 차이

변수	한국	중국	전체	$\chi^2(df)$	
	빈도(%)	빈도(%)	빈도(%)		
인지적 투자성향	안정형	65(22.3)	25(8.1)	90(15.0)	24.14(4)***
	안정추구형	136(46.6)	176(57.1)	312(52.0)	
	위험중립형	57(19.5)	64(20.8)	121(20.2)	
	적극투자형	26(8.9)	31(10.1)	57(9.5)	
	공격투자형	8(2.7)	12(3.9)	20(3.3)	
	계	292(100.0)	308(100.0)	600(100.0)	

p\* < .05, p\*\* < .01, p\*\*\* < .001

분석결과 한국은 안정추구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이 안정형으로 안정적인

추구성향이 많은데 반하여 중국은 안정추구형이 가장 많은 것은 한국과 동일하나 그 다음 순으로 위험중립형이 많아 한국소비자와 투자성향에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행동적 투자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적을 독립변수로 행동적 투자성향 각 문항을 종속변수로 t-검정을 실시하였다<표 10>.

<표 10>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행동적 투자성향의 차이

변수		한국	중국	t값
		평균	평균	
행동적 금융상품 투자성향	직접투자(A)/간접투자(B)	2.53	2.30	3.22**
	단기투자(A)/장기투자(B)	2.61	2.41	2.66**
	빚을 내서 투자(A)/여유자금 내에서 투자(B)	3.34	3.04	4.45***
	집중투자/분산투자	2.94	2.89	.88
	수익성 우선투자/안정성 우선투자	2.80	2.96	-2.34*
	계	2.84	2.72	3.03**

p\* < .05, p\*\* < .01, p\*\*\* < .001

\*점수가 2점 이하로 낮은 경우 A 성향에 가깝고 3점 이상으로 높은 경우 B 성향에 가까움

분석결과 한국소비자는 중국보다 간접투자, 장기투자, 여유자금 내에서 투자, 분산투자, 수익성 우선 투자 성향이 높은 반면에 중국소비자는 직접투자, 단기투자, 빚을 내서 투자, 집중투자, 안정성 우선 투자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4.3. 금융상품 투자성향에 따른 소비자 유형

##### 4.3.1 금융 투자성향에 따른 소비자 유형의 분류

금융상품 투자성향에 따른 소비자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행동적 투자성향 5문항을 투입한 후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1>.

<표 11> 금융 투자성향에 따른 소비자 유형의 분류

		군집										
		1군집 N=152		2군집 N=126		3군집 N=171		4군집 N=82		5군집 N=69		F비
행동적 투자 성향	직접투자/간접투자	1.97	b	1.64	a	3.29	e	2.67	d	2.32	c	155.87***
	단기투자/장기투자	1.78	a	2.39	b	2.85	c	3.28	d	2.57	b	68.16***
	빚을 내서 투자/여유자금 내에서 투자	2.67	b	3.67	c	3.63	c	2.18	a	3.51	c	138.38***
	집중투자/분산투자	2.32	a	3.48	e	3.19	e	2.85	c	2.57	b	59.89***
	수익성 우선투자/안정성 우선투자	2.58	b	3.43	c	3.39	c	2.54	b	1.71	a	134.31***

p\* < .05, p\*\* < .01, p\*\*\* < .001

1군집: 단기집중의 공격적인 투자자, 2군집: 직접분산의 중립적인 투자자, 3군집: 간접투자의 안정적인 투자자,

4군집: 빚도 감수하는 적극적인 투자자, 5군집: 여유자금 내에서 수익성위주의 공격투자자

인지적 투자성향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기준인데 반하여 행동적 투자성향은 소비자의 개인행동을 통하여 파악하는 투자성향, 즉 개인투자자가 어떠한 금융상품을 선호 혹은 보유하는지 그 투자행동을 파악하는 것을 측정하는 도표로 소비자 유형 분류에 보다 적합하게 생각되어 행동적 투자성향을 투입한 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군집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1군집은 단기투자자와 집중투자 중심의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지닌 소비자유형으로 단기집중 공격적인 투자자로, 2군집은 직접투자를 선호하고 분산투자하는 중립적인 투자성향의 소비자유형으로 직접분산의 중립적인 투자자로 명명하였다. 3군집은 간접투자자로 안정적인 투자성향의 소비자유형이라 간접투자의 안정적인 투자자로, 4군집은 좋은 기회가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의 소비자유형으로 빚도 감수하는 적극적인 투자자로, 5군집은 여유자금 내에서 수익성위주로 집중투자하는 소비자유형으로 여유자금 내에서 수익성위주의 공격투자자로 명명하였다.

#### 4.3.2 소비자유형에 따른 인지적 투자성향의 차이

전체 소비자의 행동적 투자성향을 기준으로 도출한 소비자유형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기준인 인지적 투자성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인지적 투자성향과 행동적 투자성향에 따른 소비자유형

변수		군집					전체	$\chi^2(df)$
		1군집	2군집	3군집	4군집	5군집		
인지적 투자성향	안정형	23(25.6)	20(22.2)	35(38.9)	8(8.9)	4(4.4)	90(100.0)	89.38 (16)***
	안정추구형	80(25.6)	70(22.4)	101(32.4)	39(12.5)	22(7.1)	312(100.0)	
	위험중립형	26(21.5)	31(25.6)	25(20.7)	14(11.6)	25(20.7)	121(100.0)	
	적극투자형	14(24.6)	5(8.8)	9(15.8)	20(35.1)	9(15.8)	57(100.0)	
	공격투자형	9(45.0)	0(0.0)	1(5.0)	1(0.0)	9(45.0)	20(100.0)	

p\* < .05, p\*\* < .01, p\*\*\* < .001

군집별로 살펴보면 1군집(단기중심의 공격적인 투자자)은 공격투자형과 적극투자형이 다른 군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았고, 2군집(직접분산의 중립적인 투자자)은 위험중립형이 가장 많았다. 3군집(간접투자의 안정적인 투자자)는 안정형과 안정추구형 소비자가 많았고, 4군집(빚도 감수하는 적극적인 투자자)는 적극투자형이 다른 군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5군집(여유 자금 내에서 수익성 위주의 공격투자자)는 공격투자형이 가장 많았다.

#### 4.3.3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소비자 유형의 차이

한국과 중국소비자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chi^2$ ) 분석을 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소비자 유형의 차이

변수		한국	중국	전체	$\chi^2(df)$
		빈도(%)	빈도(%)	빈도(%)	
소비자 유형	1군집(단기집중의 공격적인 투자자)	59(20.2)	93(30.2)	152(25.3)	50.16(4)***
	2군집(직접분산의 중립적인 투자자)	56(19.2)	70(22.7)	126(21.0)	
	3군집(간접투자의 안정적인 투자자)	113(36.7)	58(18.8)	171(28.5)	
	4군집(빛도 감소하는 적극적인 투자자)	21(7.2)	61(19.8)	82(13.7)	
	5군집(여유자금 내에서 수익성위주의 공격투자자)	43(14.7)	26(8.4)	69(11.5)	
	계	292(100.0)	308(100.0)	600(100.0)	

분석결과 한국은 3군집(간접투자의 안정적인 투자자)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군집(단기집중의 공격적인 투자자)인데, 중국소비자는 1군집(단기집중의 공격적인 투자자)비율이 가장 많았고, 2군집(직접분산의 중립적인 투자자) 비율이 그 다음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소비자보다 중국소비자의 투자성향이 공격적, 적극적인 것을 함의한다.

한국과 중국의 소비자유형에 따라 사회경제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chi^2$ )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4>.

<표 14>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한국 소비자유형의 차이

변수		한국 소비자유형						$\chi^2(df)$
		1군집	2군집	3군집	4군집	5군집	전체	
성별	남	27(48.2)	45(40.5)	37(78.7)	20(46.5)	18(51.4)	147(50.3)	19.78(4)**
	여	29(51.8)	66(59.5)	10(21.3)	23(53.5)	17(48.6)	145(49.7)	
연령	20대	5(8.9)	13(11.7)	5(10.6)	5(11.6)	6(17.1)	34(11.6)	10.47 (12)
	30대	13(23.2)	23(20.7)	18(38.3)	9(20.9)	10(28.6)	73(25.0)	
	40대	16(28.6)	39(35.1)	12(25.5)	14(32.6)	12(34.3)	93(31.8)	
	50대 이상	22(39.3)	36(32.4)	12(25.5)	15(34.9)	7(20.0)	92(31.5)	
교육수 준	고졸이하	9(16.1)	25(22.5)	7(14.9)	9(20.9)	7(20.0)	57(19.5)	6.15(8)
	대졸	37(66.1)	78(68.5)	37(78.7)	29(67.4)	25(71.4)	204(69.9)	
	대학원 이상	10(17.9)	10(9.0)	3(6.4)	5(11.6)	3(8.6)	31(10.6)	
결혼여 부	미혼	12(21.4)	31(27.9)	18(38.3)	13(30.2)	13(37.1)	87(29.8)	4.59(4)
	기혼	44(78.6)	80(72.1)	29(61.7)	30(69.8)	22(62.9)	205(70.2)	
직업	기능직/판매직	9(18.0)	19(19.8)	6(13.3)	8(22.2)	6(18.8)	48(18.5)	9.07(12)
	사무직	26(52.0)	45(46.9)	26(57.8)	16(44.4)	20(62.5)	133(51.4)	
	관리직/전문직	5(10.0)	14(14.6)	9(20.0)	7(19.4)	3(9.4)	38(14.7)	
	무직/기타	10(20.0)	18(18.8)	4(8.9)	5(13.9)	3(9.4)	40(15.4)	

p\* < .05, p\*\* < .01, p\*\*\* < .001

1군집: 단기집중의 공격적인 투자자, 2군집: 직접분산의 중립적인 투자자, 3군집: 간접투자의 안정적인 투자자, 4군집: 빛도 감소하는 적극적인 투자자, 5군집: 여유자금 내에서 수익성위주의 공격투자자

분석결과 한국 소비자는 성별에 따라서만 소비자유형에 차이를 보여 여성은 1군집(단기집중의 공격적인 투자자), 2군집(직접분산의 중립적인 투자자), 4군집(빛도 감수하는 적극적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남성은 3군집(빛도 감수하는 적극적인 투자자), 5군집(여유자금 내에서 수익성 위주의 공격투자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행동적 투자성향을 기준으로 군집분석한 소비자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적극적인 투자 형태를 보인다는 김지수(2007)과 민재형·구기동(2004)의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소비자유형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교육 수준에 따라 위험수용성향이 증가하여 위험감수도와 정비례한다는 선행연구(Sung & Hanna, 1996; Bajtelsmit & Bernasek, 2001; 이진형, 2008)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중국 소비자유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중국 소비자유형의 차이

변수		중국 소비자유형						$\chi^2(df)$
		1군집	2군집	3군집	4군집	5군집	전체	
성별	남	57(60.6)	40(66.7)	27(73.0)	30(50.0)	47(82.5)	201(65.3)	15.51 (4)**
	여	37(39.4)	20(33.3)	10(27.0)	30(50.0)	10(17.5)	107(34.7)	
연령	20대	28(29.8)	12(20.0)	10(27.0)	19(31.7)	18(31.6)	87(28.2)	11.47 (12)
	30대	26(27.7)	20(33.3)	16(43.2)	18(30.0)	18(31.6)	98(31.8)	
	40대	27(28.7)	14(23.3)	5(13.5)	17(28.3)	11(19.3)	74(24.0)	
	50대 이상	13(13.8)	14(23.3)	6(16.2)	6(10.0)	10(17.5)	49(15.9)	
교육수준	고졸이하	23(24.5)	16(26.7)	12(32.4)	15(25.0)	14(24.6)	80(26.0)	1.90(8)
	대졸	63(67.0)	39(65.0)	21(56.8)	39(65.0)	36(63.2)	198(64.3)	
	대학원 이상	8(8.5)	5(8.3)	4(10.8)	6(10.0)	7(12.3)	30(9.7)	
결혼여부	미혼	25(26.6)	9(15.0)	7(18.9)	18(30.0)	14(24.6)	73(23.7)	4.76(4)
	기혼	69(73.4)	51(85.0)	30(81.1)	42(70.0)	43(75.4)	235(76.3)	
직업	기능직/판매직	27(28.7)	22(36.7)	9(24.3)	9(15.0)	24(42.1)	91(29.5)	35.47 (12)***
	사무직	29(30.9)	16(26.7)	11(29.7)	34(56.7)	11(19.3)	101(32.8)	
	관리직/전문직	30(31.9)	21(35.0)	13(35.1)	12(20.0)	22(38.6)	98(31.8)	
	무직/기타	8(8.5)	1(1.7)	4(10.8)	5(8.3)	0(0.0)	18(5.8)	

p\* < .05, p\*\* < .01, p\*\*\* < .001

1군집: 단기집중의 공격적인 투자자, 2군집: 직접분산의 중립적인 투자자, 3군집: 간접투자의 안정적인 투자자, 4군집: 빛도 감수하는 적극적인 투자자, 5군집: 여유자금 내에서 수익성위주의 공격투자자

사회경제적 변수 중 성별과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여 남성은 1군집

(단기집중의 공격적인 투자자), 2군집(직접분산의 중립적인 투자자), 3군집(간접 투자의 안정적인 투자자)이 많은 반면에 5군집(여유자금 내에서 수익성위주의 공격투자자)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중국소비자 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능직/판매직은 5군집(여유자금 내에서 수익성위주의 공격투자자)과 2군집(직접분산의 중립적인 투자자)이, 사무직은 4군집(빛도 감수하는 적극적인 투자자)이, 관리직 전문직은 5군집(여유자금 내에서 수익성위주의 공격투자자)이 무직/기타는 4군집(빛도 감수하는 적극적인 투자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상태 특성에 따른 한국소비자 유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변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6>. 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소비자 유형의 경우 자유저축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계가 예금이나 주식을 보유한 경우나 매월 저축을 하는 경우 투자성향이 높다는 허경옥·유수현(2012)의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한국소비자 유형의 경우 연평균 투자총액이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결과는 투자규모가 개인의 투자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Lewellen et al.(1997)의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표 16> 재무상태 특성에 따른 한국 소비자 유형의 차이

		한국 소비자 유형						$\chi^2(df)$
		1군집	2군집	3군집	4군집	5군집	전체	
월평균 소득	400만 원 이상 / 8천 위안 이상	26(25.5)	22(21.6)	35(34.3)	8(7.8)	11(10.8)	102(100.0)	8.97 (8)
	200-400만 원 미만 / 4천 5백 위안-8천 위안 미만	22(19.8)	17(15.3)	42(37.8)	9(8.1)	21(18.9)	111(100.0)	
	200만 원 미만 / 4천 5백 위안 미만	11(13.9)	17(21.5)	36(45.6)	4(5.1)	11(13.9)	79(100.0)	
거주부동산 총액	계	22(16.3)	28(20.7)	58(43.0)	8(5.9)	19(14.1)	135(100.0)	4.03 (4)
	2억이상	37(23.6)	28(17.8)	55(35.0)	13(8.3)	24(15.3)	157(100.0)	
거주 이외 부동산유무	유	22(22.7)	17(17.5)	38(39.2)	8(8.2)	12(12.4)	97(100.0)	1.43 (4)
	무	37(19.0)	39(20.0)	75(38.5)	13(3.7)	31(15.9)	195(100.0)	
자유 저축	100만원미만	11(18.0)	14(23.0)	20(32.8)	4(6.6)	12(19.7)	61(100.0)	8.43 (12)
	100-300만원미만	17(23.9)	15(21.1)	29(40.8)	2(2.8)	8(11.3)	71(100.0)	
	300-1000만원미만	17(21.0)	12(14.8)	31(38.3)	9(11.1)	12(14.8)	81(100.0)	
	1000만원이상	14(17.7)	15(19.0)	33(14.8)	6(7.6)	11(13.9)	79(100.0)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유무	유	36(24.3)	26(17.6)	51(34.5)	14(9.5)	21(14.2)	148(100.0)	6.52 (4)
	무	23(16.0)	30(20.8)	62(43.1)	7(4.9)	22(15.3)	144(100.0)	
연평균 투자총액	1000만원 이하	31(19.0)	29(17.8)	68(41.7)	10(6.1)	25(15.3)	163(100.0)	2.16 (4)
	1000만원 초과	28(21.7)	27(20.9)	45(34.9)	11(8.5)	18(14.0)	129(100.0)	

p\* < .05, p\*\* < .01, p\*\*\* < .001

재무교육특성에 따른 한국 소비자유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17>, 재무교육 경험이나 재무교육 필요도는 소비자유형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7> 재무교육 특성에 따른 한국 소비자유형의 차이

	한국 소비자 유형						F비
	1군집	2군집	3군집	4군집	5군집	전체	
재무교육 경험	2.80	2.57	2.59	2.83	2.42	2.61	.51
재무교육 필요도	3.76	3.89	3.74	3.74	3.74	3.77	.22

p\* < .05, p\*\* < .01, p\*\*\* < .001

1군집: 단기집중의 공격적인 투자자, 2군집: 직접분산의 중립적인 투자자, 3군집: 간접투자의 안정적인 투자자,

4군집: 빛도 감수하는 적극적인 투자자, 5군집: 여유자금 내에서 수익성위주의 공격투자자

재무상태 특성에 따른 중국 소비자유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거주이의 부동산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표 18>. 중국 소비자의 경우 거주이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3군집(간접투자의 안정적인 투자자), 4군집(빛도 감수하는 적극적인 투자자), 5군집(여유자금 내에서 수익성위주의 공격투자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없는 경우는 1군집(단기집중의 공격적인 투자자)과 2군집(직접분산의 중립적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이외의 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8> 재무상태 특성에 따른 중국 소비자유형의 차이

		중국 소비자 유형						$\chi^2(df)$
		1군집	2군집	3군집	4군집	5군집	전체	
월평균 소득	400만 원 이상/ 8천 위안 이상	22(26.2)	15(17.9)	18(21.4)	19(22.6)	10(11.9)	84(100.0)	7.39 (8)
	200-400만 원 미만/ 4천 5백 위안-8천 위안 미만	43(31.2)	34(24.6)	27(19.6)	22(15.9)	12(8.7)	138(100.0)	
	200만 원 미만/ 4천 5백 위안 미만	28(32.6)	21(24.4)	13(15.1)	20(23.3)	4(4.7)	86(100.0)	
거주부동산 총액	80만위안 미만	49(34.0)	28(19.4)	28(19.4)	27(18.8)	12(8.3)	144(100.0)	3.05 (4)
	80만위안이상	43(26.4)	42(25.8)	30(18.4)	34(20.9)	14(8.6)	163(100.0)	
거주 이외 부동산유무	유	31(25.2)	21(17.1)	26(21.2)	32(26.0)	13(10.6)	123(100.0)	10.24 (4)*
	무	62(33.5)	49(26.5)	32(17.3)	29(15.7)	13(7.0)	185(100.0)	
자유저축	10만위안 미만	25(32.1)	17(21.8)	20(25.6)	12(15.4)	4(5.1)	78(100.0)	19.10 (12)
	10만-20만위안미만	26(40.0)	15(23.1)	10(15.4)	11(16.9)	3(4.6)	65(100.0)	
	20만-30만위안미만	22(36.1)	12(19.7)	6(9.8)	15(24.6)	6(9.8)	61(100.0)	
	30만위안 이상	20(19.2)	26(25.0)	22(21.2)	23(22.1)	13(12.5)	104(100.0)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유무	유	38(29.2)	21(16.2)	32(24.8)	27(20.8)	12(9.2)	130(100.0)	8.61 (4)
	무	55(30.9)	49(27.5)	26(14.6)	34(19.1)	14(7.9)	178(100.0)	
연평균 투자총액	5만위엔 이하	52(32.5)	36(22.5)	32(20.0)	32(20.0)	8(5.0)	160(100.0)	8.92 (4)
	5만위엔 초과	30(22.9)	32(24.4)	23(17.6)	28(21.4)	18(13.7)	131(100.0)	

p\* < .05, p\*\* < .01, p\*\*\* < .001

1군집: 단기집중의 공격적인 투자자, 2군집: 직접분산의 중립적인 투자자, 3군집: 간접투자의 안정적인 투자자,

4군집: 빛도 감수하는 적극적인 투자자, 5군집: 여유자금 내에서 수익성위주의 공격투자자

재무교육 특성에 따른 중국 소비자 유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재무교육 필요도에서 차이를 보여 2군집(직접분산의 중립적인 투자자)과 3군집(간접투자의 안정적인 투자자)이 다른 군집에 비하여 재무교육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19>.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무교육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한국 소비자 유형과 다르게 나타났다.

<표 19> 재무교육 특성에 따른 중국 소비자 유형의 차이

	중국 소비자 유형										전체	F비
	1	2	3	4	5							
재무교육 경험	4.01	4.19	4.20	4.13	4.02	4.11	1.34					
재무교육 필요도	4.06	a	4.38	b	4.36	b	4.09	a	4.08	a	4.20	3.95**

p\* < .05, p\*\* < .01, p\*\*\* < .001

1군집: 단기집중의 공격적인 투자자, 2군집: 직접분산의 중립적인 투자자, 3군집: 간접투자의 안정적인 투자자,

4군집: 빛도 감수하는 적극적인 투자자, 5군집: 여유자금 내에서 수익성위주의 공격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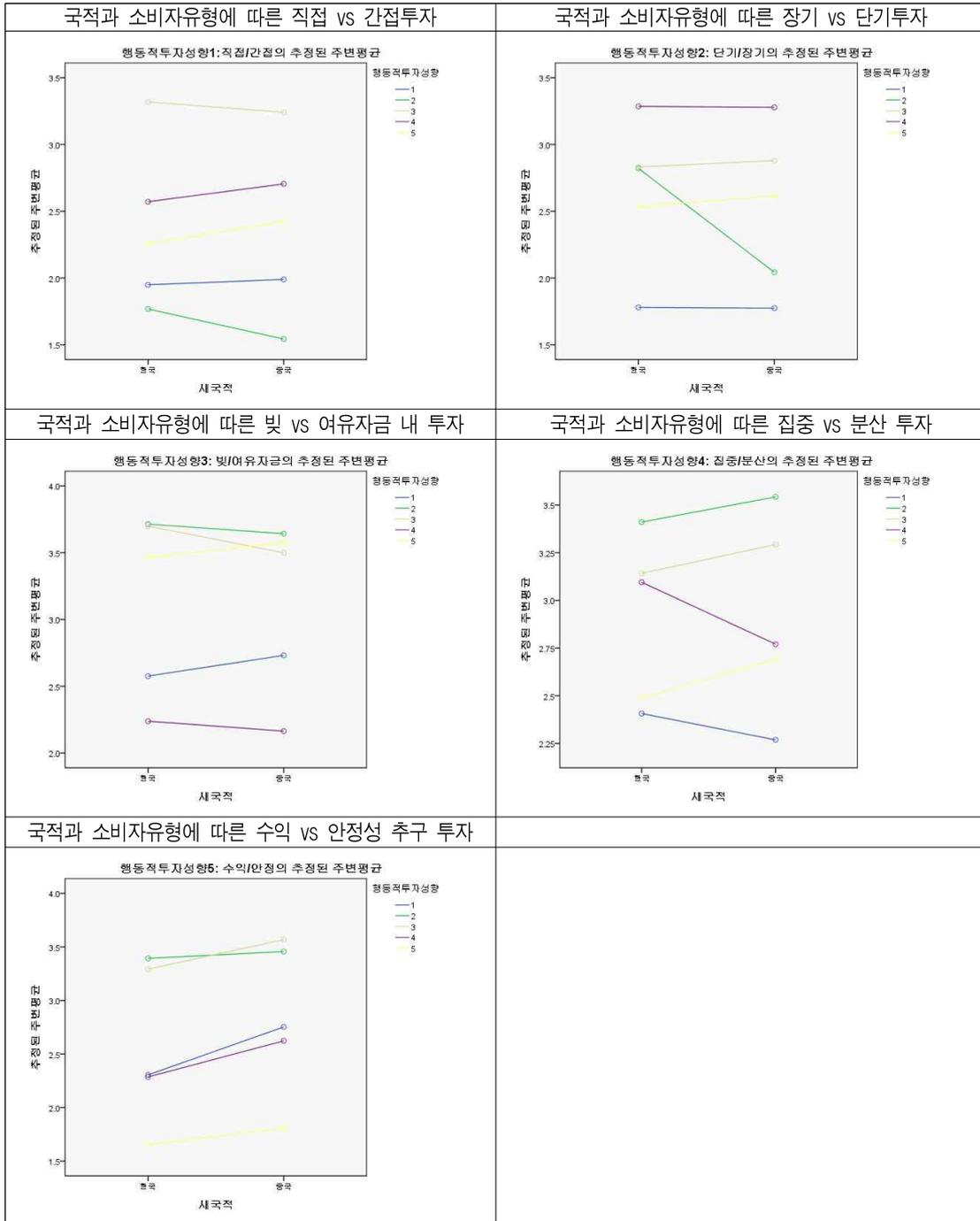
#### 4.4. 한·중소비자의 소비자 유형이 행동적 투자성향에 미치는 효과

금융투자 경험 소비자의 소비자 유형이 행동적 투자성향에 있어서 국적이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적과 소비자 유형을 독립변수로 행동적 투자성향을 종속변수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표 20><그림 1>.

<표 20> 국적과 소비자 유형에 따른 행동적 투자성향 분산의 근원

종속변수	분산의 근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비
직접투자/간접투자	국적	.007	1	.007	.02
	소비자 유형	218.16	4	54.54	140.70***
	국적×소비자 유형	2.49	4	.62	1.61
단기투자/장기투자	국적	2.08	1	2.08	3.92*
	소비자 유형	134.01	4	33.50	63.19***
	국적×소비자 유형	15.72	4	3.93	7.41***
.빛을 내서 투자/ 여유자금 내에서 투자	국적	.03	1	.03	.08
	소비자 유형	165.11	4	41.28	118.41***
	국적×소비자 유형	2.74	4	.89	1.96
집중투자/분산투자	국적	.003	1	.003	.006
	소비자 유형	107.94	4	26.99	56.05***
	국적×소비자 유형	4.36	4	1.09	2.26
수익성 우선투자/ 안정성 우선투자	국적	7.77	1	7.77	21.99***
	소비자 유형	198.35	4	49.59	140.28***
	국적×소비자 유형	2.73	4	.88	1.93

p\* < .05, p\*\* < .01, p\*\*\* < .001



[그림 1] 국적과 소비자유형에 따른 행동적 투자성향의 효과

\* 점수분포: 점수가 낮으면 앞의 성향, 점수가 높으면 뒤의 성향이 높음

1군집: 단기집중의 공격적인 투자자, 2군집: 직접분산의 중립적인 투자자, 3군집: 간접투자의 안정적인 투자자,

4군집: 빛도 감수하는 적극적인 투자자, 5군집: 여유자금 내에서 수익성위주의 공격투자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수는 국적(한국 vs 중국)과 소비자유형(1군집 vs 2군집 vs 3군집 vs 4군집 vs 5군집), 종속변수는 행동적 투자성향의 세부문항 즉

직접투자 vs 간접투자, 단기투자 vs 장기투자, 빚을 내서 투자 vs 여유자금 내에서 투자, 집중투자 vs 분산투자, 수익성 우선투자 vs 안정성 우선투자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양국 소비자의 행동적 투자성향에 있어 국적과 소비자유형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동적 투자성향 중 직접투자 대비 간접 투자성향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유형만 주효과를 보이고 상호작용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직접투자 대비 간접투자성향의 경우 국적은 주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소비자유형만 차이를 보여 3군집(간접투자의 안정적인 투자자)과 4군집(빚도 감수하는 적극적인 투자자)이 다른 군집에 비하여 간접투자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과 소비자 유형에 따른 장기투자 대비 단기투자 효과를 살펴보면 국적, 소비자유형이 주효과를 보였고, 국적과 소비자유형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보다는 중국소비자의 단기투자성향이 높았고, 4군집(빚도 감수하는 적극적인 투자자)의 단기투자 대비 장기투자성향이 가장 높았고, 1군집(단기집중의 공격적인 투자자)이 단기투자 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2군집(직접분산의 중립적인 투자자)으로 한국소비자는 장기투자성향이 높는데 반하여 중국소비자는 단기투자성향이 강하여 다른 소비자유형과 차이를 보였다.

국적과 소비자유형에 따른 빚을 내서 투자 대비 여유자금 내에서 투자를 살펴보면 소비자유형만 주효과를 보여, 2군집(직접분산의 중립적인 투자자), 5군집(여유자금 내에서 수익성위주의 공격투자자), 3군집(간접투자의 안정적인 투자자)은 여유자금 내에서 투자하는 성향이 높았고, 1군집(단기집중의 공격적인 투자자), 4군집(빚도 감수하는 적극적인 투자자)은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성향이 높았다.

국적과 소비자유형에 따른 집중투자 대비 분산 투자는 소비자유형만 주효과를 보였고, 국적과 상호작용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2군집(직접분산의 중립적인 투자자), 3군집(간접투자의 안정적인 투자자), 4군집(빚도 감수하는 적극적인 투자자)은 분산투자성향이 높았고, 5군집(여유자금 내에서 수익성위주의 공격투자자)과 1군집(단기집중의 공격적인 투자자)은 집중투자성향이 높았다.

국적과 소비자유형에 따른 수익성 대비 안정성 우선 투자는 국적과 소비자유형이 주효과를 보였고, 상호작용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우선 국적은 한국은 수익성 투자성향이 높은 반면에 중국은 안정성 투자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비자유형은 5군집(여유자금 내에서 수익성위주의 공격투자자)이 수익성 추구성향이 가장 높았고, 1군집(단기집중의 공격적인 투자자), 3군집(간접투자의 안정적인 투자자)이 그 다음 순이었으며, 2군집(직접분산의 중립적인 투자자)과 4군집(간접투자의 안정

적인 투자자)은 수익성보다 안정성 투자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금융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투자성향과 소비자유형을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투자성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 금융상품 투자경험자의 소비자유형이 행동적 투자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양국가 소비자의 금융상품투자자의 소비자특성에 맞는 정책 제언과 소비자교육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상품 투자경험이 있는 한국과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투자성향을 살펴보았다. 금융투자성향 즉 인지적 투자성향과 행동적 투자성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안정추구형이 가장 높았고, 안정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순이었고, 중국은 안정추구형이 가장 높았고,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안정형, 공격 투자형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행동적 금융상품 투자성향은 한국은 간접투자, 장기투자, 여유자금 내에서 투자, 수익성 우선투자 성향이 높은 반면에 중국소비자는 직접투자, 단기투자, 빚을 내서 투자, 안정성 우선투자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따른 소비자유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행동적 투자성향을 기준으로 군집분석한 결과 5군집으로 유형화하였다. 한국 소비자는 3군집(간접투자의 안정적인 투자자)이 가장 많았고, 1군집(단기집중의 공격적인 투자자)이 그 다음 순인데 반하여, 중국은 1군집(단기집중의 공격적인 투자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군집(직접분산의 중립적인 투자자)이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국 보다 중국 소비자의 투자성향이 공격적, 적극적인 것을 함의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 금융상품 투자경험자의 소비자 유형이 행동적 투자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직접투자 대비 간접투자는 소비자유형이 주효과를 보였고 국적과 상호작용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단기투자 대비 장기투자는 국적, 소비자유형이 주효과를 보였고, 국적과 소비자유형이 상호작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내서 투자 대비 여유자금 내에서 투자는 소비자유형만 주효과를 보이고,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통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자 유형의 좀 더 세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상품 투자성향을 토대로 5군집의 소비자유형으로 도출하여 분석하였는데, 국적과 소비자유형

에 따라 유사점과 차이점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에 투자자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양국가 소비자유형에 따른 금융상품 투자성향을 비교분석하면 양국의 금융소비자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국제적 투자자의 투자국 특성 및 투자문화 세분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국적과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재무상태와 교육 특성 등 개인적 특성 위주로 분석하였다. 이에 소비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도출하였지만 투자국 특성과 투자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보다 정확한 시장정보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제적 투자자의 투자국 특성과 투자문화 세분화가 요구된다.

셋째, 국내 중국인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의하면 중국 소비자의 금융상품 투자성향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비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다. 이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금융상품 개발은 비단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중국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투자자 스스로의 결정과 자신의 투자유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금융상품은 상품의 특성상 재무적 손실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국가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금융상품 투자성향만 분석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미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해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표본지역은 한국의 서울 및 수도권 지역과 중국의 베이징 및 상하이 등 특정 지역만을 한정된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표집 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현재 투자경험 여부만 조사하였고 현재의 투자상태를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패널조사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스스로의 경험에서 우러난 비교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투자경험이 없는 소비자도 조사하여 둘을 비교했지만, 미래의 직접적인 투자에서 변화될 수 있는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 참고 문헌

- 김미리, 김시월(2013), 소비자의 가계자산구성비율 및 재정만족도 연구 - 가족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013(5), 264-267.
- 김민정, 최현자(2008), 은퇴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자산포트폴리오 변화,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4(4), 23-40
- 김시월, 조향숙(2015), 재무상담 전후의 가계소비와 저축 변화에 관한 연구: 부채유무 집단을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8(1), 81-106
- 김영민, 이명휘(2012), 개인의 금융자산배분에 관한 분석-투자심리변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28, 145-172.
- 김지수(2007), 국내 프라이빗 बैं킹 고객의 투자성향별 특성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차별적인 마케팅 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 학위논문.
- 김종모(2014), 노후생활인식과 재무교육이 은퇴준비와 만족예측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항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전표(2004), 랩 어카운트 고객 위험성향과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산학경영연구**, 17(1), 137-151.
- 민경실, 송인성(2014), 국내 금융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 측정, **소비문화연구**, 17(1), 69-88.
- 민재형, 구기동(2004), 불확실성하에서의 개인의 투자행태 및 투자결정요인, **서강대학교 경영학연구**, 231-256.
- 박광수, 양재영, 주소현(2010), **개인재무설계**, 도서출판 경문사.
- 박종욱, 손상희(2012), 소비자의 금융소비자문제경험과 영향 요인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43(12), 49-69
- 성영애(2013), 재무교육 및 재무상담에 대한 소비자요구와 선호 분석, **소비자학연구**, 23(2), 85-105
- 성지미, 안주엽(2007), 위험감수도와 자영업 선택, **한국경제의 분석**, 13(1), 125-193.
- 손상호, 김영도(2014), 국내 금융투자업의 발전방향 및 과제, **한국금융연구**, 14(1), 1-14
- 여윤경, 정순희(2004), 가계의 주식투자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11-21
- 연합뉴스(2016.09.28), 2분기 가계여유자금급감... 집 사느라 허덕, <http://www.yonhapnews.co.kr>
- 오종운, 이지영, 최현자, 박주영(2014), 재무설계상담이 재무복지수준향상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 종업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구**, 36(1), 1-21.
- 이기춘, 성영애(1988), 소비자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교육에 대한 요인분석: 주부소비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생활과학연구**, 12(3), 11-23

- 이진형(2008), 위험 회피성향을 고려한 가계의 자산 선택 결정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운영, 김정자(2004), 가계 재무위험 구성요소들의 관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2(1), 11-22
- 조혜진, 최재경(2015), 저축 및 투자목적과 금융자산선택 간의 관계 연구 : 돈에 대한 태도와 투자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8(3), 119-153
- 주소현(2009), 가계의 적립식펀드와 거치식펀드 투자 행동, **보험금융연구**, 20(3), 247-281
- 최재경, 양세정(2015),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머니 스크립트(Money Script) 유형화에 관한 연구 Klontz-MSI척도를 중심으로, FP학회 2015년 동계학술대회. 1-22.
- 최창열, 이주영, 함형범(2010), 한·중 온라인 주식투자자의 투자특성에 대한 분석, **The e-Business Studies**, 11(1), 245-265
- 한국거래소(2016.11.07), 주식투자인구, UMDSR6030301 <http://marketdata.krx.co.kr>.
- 한국은행(2016.09.28), 2016년 2/4분기중 자금순환(잠정), <http://www.bok.or.kr>.
- 한승조, 고현민, 구교찬(2015), MBTI 성격유형에 따른 투자성향 연구, **대한산업공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4049-4054
- 허경옥, 유수현(2012), 가계투자에서의 위험감수성향 판별변수조사 위험 감수성향에 따른 가계 재무관리 특성 분석, **Financial Planning Review**, 5(1), 133-159.
- 홍대연(2005), 주식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수익률간의 관련,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jtelsmit, V. L., & Bernasek, A. (2001), Risk preferences and the investment decisions of older Americans. *AARP*, Public Policy Institute.
- Grable, J. E & Lytton, R. H.(1998), Investor risk tolerance: Testing the efficiency of demographics as differentiating and classifying factors. *Financial Counsel and Planning*, 9(1), 61-73
- Grable, J. E., & Carr, N. A.(2014), Risk Tolerance and Goal-Based Financial Planning. *Journal of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s*, 68(1).
- Lewellen, W. G., R. C. Lease & Schlarbaum G. G.(1997), Patterns of investment strategy and behavior among individual investors. *The Journal of Business*, 50(3), 296-333.
- Louw Schalke(2015), Understanding risk tolerance in investing, Fineweek, 54.
- Lyons, A C. & Yilmazer, T.(2004), How does marriage affect the allocation of assets in women's defined contribution plans?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Working Paper*, 28, 1-16
- Sarin, R. K., & Weber, M.(1993), Effects of Ambiguity in Market Experiments. *Management*

*Science* 39(5) 602 -615

Sung, J., & Hanna, S.(1996), Factors related to risk tolerance.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11.

Vitell, S. J., Singh, J. J., & Paolillo, J. G. (2007), Consumers' ethical beliefs: The roles of money, religiosity and attitude toward business. *Journal of Business Ethics*, 73(4), 369-379.